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만에 62억원 돌파

공감형 기금사업·우수 답례품·현장 기부로 전국 기부자 마음 사로잡아

영암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만에 누적 모금액 62억7,000만원을 달성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영암군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12억원, 이듬해인 2024년 18억원을 모금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2억원을 모금하며 2년간의 누적액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영암군민의 삶에 직접 닿는 공감형 기금사업이 있었다.

영암군은 ▲소아청소년과 운영 ▲영양이 기억 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어르신 영화 관람 ▲기차 이동 빨래방 등 총 12개 기금사업을 운영하며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 4개의 지정기부 사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15억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소아청소년과 운영 사업은 2025년 목표액을 조기 초과 달성했으며, 12월 28일부터 추가 모금에 들어간 지 불과 4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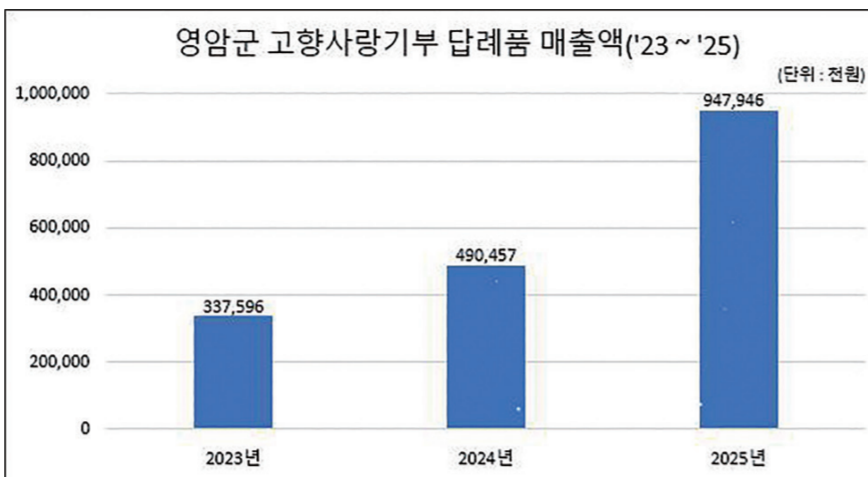
에 1억3,000만원의 기부로 누적 10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동네방네 기찬장터 사업은 모금 시작 2주 만에 목표액 3,000만원의 160%를 넘는 4,800만원이 모여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기부 홍보도 성과를 뒷받쳤다. 영암군은 지난해 HD현대사호, 해군 제3함대 등 봉급 생활자가 많은 기업과 기관, 각종 행사 현장에서 58회의 찾아가는 현장 기부 활동을 펼쳐 1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또한 경남 산청군 등 자매도시와 인근 시군과의 교차 기부를 통해서도 4,000여 만원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 것은 영암군의 우수한 농특산물 답례품과 공급업체의 정성이었다.

영암군은 71개 공급업체에서 158개의 답례품을 운영하며 기부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고, 그 결과 지난 1년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답례품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무화과 제철을 맞아 진행된 이벤트는 3일 만에 전 물량이 완판되는 이례적인 성과를 냈으며, 한 달 동안 3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다.

연초부터 기부자에게 감사 전화와 감사 문자를 보내고, 주변에 영암군에 기부하도록 주변에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람 중심의 소통 전략도 기부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여했다. 여기에 각종 언론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광고와 이벤트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영남권 산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영암/김희선 기자



함평군,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발대식 개최
철저한 예방·신속한 대응으로 군민 안전 강화

전남 함평군은 "지난 28일 함평군 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개최한 이번 발대식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화대 임무 부여와 안전 결의, 산불 대응체계 점검 등이 진행됐다.

산림재난대응단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체계를 확립해 산불 취약지역 순찰·예방 활동과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함평/전광훈 기자

군은 특히 ▲산림 인접 지역 ▲등산로 ▲주요 산림 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재난대응단을 중심으로 철저한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함평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 대상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산불조심기간 산림 감시와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에 관심 있는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농업기계를 직접 운전·조작해 보는 실습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각 과정별 모집 인원은 굴착기 과정은

광양시,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 교육생 모집

농업기계 안전 사용법, 현장 운전 실습으로 익힌다

2명, 그 외 과정은 15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로, 농업기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사고 사례,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이론 교육

을 실시한 뒤 해당 기종을 직접 운전해 보는 현장 실습으로 이어진다. 교육은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되며, 일정과 기종은 ▲2월 24일 트랙터 ▲2월 25일 경운기·보행관리

기 ▲2월 26일 트랙터·보행관리기(여성농업인 농업기계) ▲2월 26일 휴믹기·비닐피복기 ▲3월 4일 보행관리기 정비 ▲3월 5일·6일 굴착기(2회) 순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과 함께, 수작업 위주로 이뤄지던 밭 작업을 기계 동력으로 대체하는 밭농업 기계화 과정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재)무안군승달장학회(이사장 김산)는 지역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승달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선발 규모는 성적우수·저소득·예체능(고등학생, 대학생), 다문화·다자녀 가정(중·고등학생, 대학생), 체육꿈나무, 주거비(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장학

(재)무안군승달장학회, 상반기 장학생 선발

성적우수 분야 등 총 200명 선발, 2억 1300만 원 규모

생들에게는 중·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50만 원 등 총 2억 1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은 공고일인 2026년 1월 28일 기준 부모 모두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의 자녀인 경우 해당된다.

접수처는 보호자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총무팀이며, 남·주민은 남·남북복합주민센터 내 남·출장소, 오·주민은 오·출장소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무안군승달장학회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초 장학생을 최종 선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상세 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이나 읍면사무소 총무팀 문의 시 확인이 가능하다. /무안군 제공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송정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1월 31일부터 주말에는 왕복 2회로 확대 운행한다.

시외버스 노선은 기존 송정역 경유 시간을 KTX 운행 시간과 여유 있게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철도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높이고, 주말에 한 해 운행되는 추가 운행 1회는 해남역을 경유

완도해양치유센터-송정역 시외버스, 주말 운행 확대

KTX 연계 고려해 송정역 경유 시간 조정, 주말 해남역 경유

함으로써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하루 왕복 1회만 운영됐으나 주말 추가 운행을 통해 해양치유 이용객과 지역 주

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시간은 평일과 주말의 경우 광주 유스퀘어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해 송정역(9시 50분)을 경유, 완도해양

치유센터(11시 50분), 완도공용버스터미널(12시 10분)에 도착한다.

상행은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오후 5시 10분에 출발, 완도해양치유센터(5시 30분), 광주 송정역(7시 30분)을 거쳐 광주 유스퀘어(7시 50분)에 도착한다.

주말 추가 노선은 출발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행한다. 완도/장선우 기자

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 실시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총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국가 핵심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개별 법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하고,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다.

고흥군은 특별법 조속 제정과 핵심 인프라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

행된다. 오프라인 서명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명은 2월 2일부터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의 배너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내 주요 시설에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고, 2월 5일 재경고흥향우회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행사장에 서명운동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는 고흥군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과 군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 활동을 강화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국가 핵심 우주 인프라 유치를 통해 '한국형 스타베이스(Starbase)'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